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단어 형성법 교육 내용 연구

김 보 현
|중앙대학교|

1. 서론

이 연구는 중·고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범주에 한국어 단어 형성법을 체계적으로 포함해야 함을 전제로, 이때 한국어 신조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어휘 교육 내용으로서 한국어 단어 형성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선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어의 구조 혹은 단어 형성법을 어휘 교수에 활용하는 것은 모국어교육¹⁾ 및 외국어교육²⁾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언어에 관한 생성적 관점에서는 단어 형성법을 인지하는 것이 언어 사용자의 어휘부 내에 이미 존재하는 단어가 어휘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며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여 어휘 교육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 즉 단어 형성법 교육은 학습자가 단어의 내적 구조를 인지하여 유추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이래호, 2011:161)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언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 형성법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단어 형성법을 활용한 어휘 교육에 관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주목할 것은 특히 ‘신조어’³⁾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단어 형성법의 활용이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⁴⁾

1) 박혜진(2018:37-38)에 따르면, 단어 형성법은 국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주요 교육 내용으로 자리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요 연구로는 주세형(2005나), 구분관(2007), 나은미(2008), 박혜진(2010) 등을 들 수 있다.

2) 김지홍 역(2003:151-154)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의 낱말 만들기 과정을 경험하고 그 원리를 자각함으로써 어휘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새롭게 만들어져 쓰이는 단어인 신조어가 한국어의 공식적인 단어 형성 방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어휘 유형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신조어를 활용하여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⁵⁾를 위한 단어 형성법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어에서 신조어가 생성되는 양은 방대하며 이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특히 일상 구어뿐 아니라 언론, 방송, 서적 등 공식적인 언어 매체에서의 빈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신조어는 현대 한국의 언어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신조어는 일반어휘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신조어의 사용은 언어 공동체에서의 소속감이나 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조어를 알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 학습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다.⁶⁾ 김백희(2018)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어 교사의 93%와 학생의 83%가 한국어 학습의 흥미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신조어가 필요하

- 3) 본고에서는 ‘신조어’라는 용어에 대하여 ‘언어 공동체가 새롭게 수용한 단어의 형성’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문금현(1999:296)에서 새로운 단어 형성과 관련하여 ‘임시어’를 ‘어떤 순간적인 요구가 생길 때 화자나 필자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로, ‘신어’를 ‘임시어가 어휘 체계에 정착된 것’으로 정의한 이후 학계에서는 두 개념이 구분되어 왔다. 하지만 정한테로(2015; 2017)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어휘 체계에 정착’ 혹은 ‘사회적 공인’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신어’의 외연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화자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본고의 초점은 단어의 ‘정착’이나 ‘공인’이 아니라 언어교육학의 입장에서 새로이 형성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교육의 범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므로 ‘임시어’와 ‘신어’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 완벽히 한국어에 정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교적 최근 형성되어 공식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를 통칭하기 위해 ‘신조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용어의 사용은 신희삼(2018)의 ‘신조어’ 개념을 따른 것이다.
- 4) 이래호(2011), 최은희(2015), 이현정(2015) 등 다수의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한국어 신조어 교육을 위해 단어 형성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 5) 대상이 되는 학습자를 중급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단어 형성법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급 학습자는 교육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둘째, 신조어 학습의 필요성도 중급 이상 수준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6) 이래호(2011:158-159)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신조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신조어를 아는 신세대와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의 의사소통 단절 현상을 예로 들어 이러한 측면이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 학습자가 언론 매체를 접하거나 한국인과의 대화 중 모르는 신조어가 등장한다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집단적 단절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신조어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